우암학원 창학 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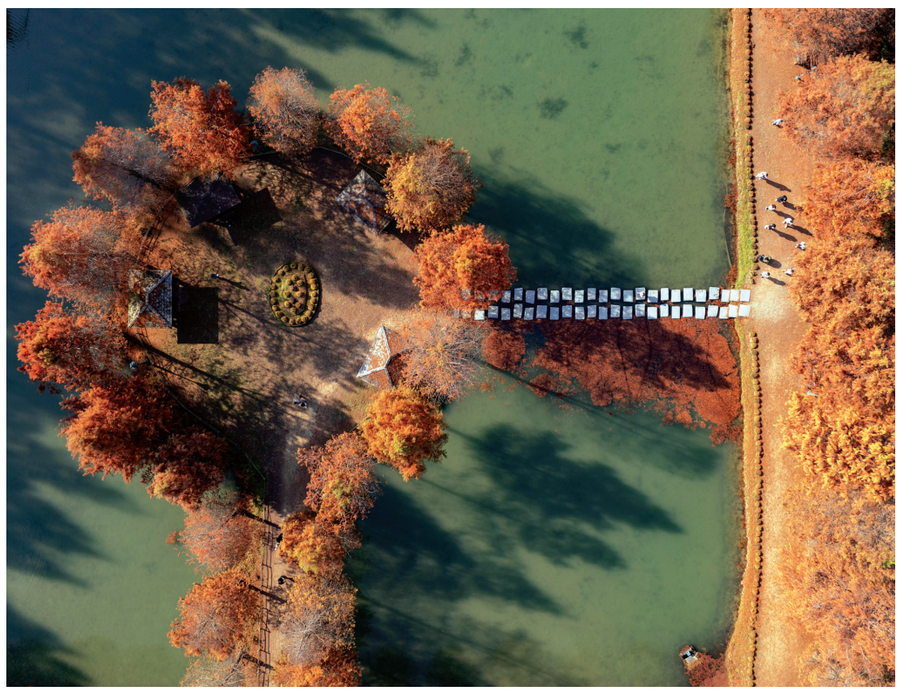
光州日報
71 SINCE 1952

고품격 명품아파트의 기준! 승원팰리체
FELICE
www.승원건설그룹.com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137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0월 15일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총선의 계절… 인재 영입 경쟁

국힘, MZ·호남·여성에 중점
호남 무소속 단체장 영입 대상
민주, 과학·경제 전문가 찾기
민생 경제 회복·참신성 초점
친윤·친명 대거 입문 우려도



가을의 끝자락을 거닐며… 휴일인 26일 가을빛으로 물든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길을 관광객들이 산책하며 계절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전쟁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심각한 '인재난'을 타개하기 위해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지만, '참신한 정치인 발굴'이라는 본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6일 여야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달 초 1차 영입 인재 9~15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약자와의 동행, 미래에 대한 책임, 질서 있는 변화 등 세 가지 주제를 삼아 분야별 인재를 영입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에 MZ세대와 호남 출신, 여성 등을 배치해 2030 세대 고민과 극단적인 대치 해소, 여성 정책을 담아낼 인재 발굴을 강조한 바 있다.

당 혁신을 요구하는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인재 영입에 여러 변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원회가 당 주류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혁신안으로 발표한 데다, 영남지역 세대교체도 요구하면서 인재 영입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내년 총선의 승패를 가를 '수도권 대전'을 앞두고 서울·경기 지역에서의 인재 영입에 대한 내부 요구도 터져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을 겨냥한 '서진정책'을 펴고 있는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전문직 등 새 얼굴 찾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인물 찾기를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나섰다. 과거 선거 때마다 보수 정당의 간판을 달고 등장했던 인물에서 벗어나 젊은 층이나 기존 보수층 등을 겨냥해 전문 직종의 인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구체적인 영입 인사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과거 보수 진영을 대표해 출마했던 정치인들이 상당수 물갈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도 총선을 앞두고 "미래 광주시당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치 신인을 적극 발굴하겠다"면서 막막한 젊은 세대의 정계 진출 해소와 동시에 지역 소외를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 호남 전략 지역'에 대한 무소속 지방단체장 영입도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당 홈페이지에 개설된 특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인재를 추천받고, 각 분야에 3~5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 다음해 1월 중하순께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까지 총 786명을 추천받아 1차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인공지능(AI), 지구환경, 동물복지 등 과학기술 분야와 경제 전문가 등이 영입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전문가 섭외 등을 통해 경제 회생과 민생 회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역시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한 국민 추천으로 인재를 영입할 계획이다. 추천된 인재는 인재위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영입이 확정되고, 영입 식을 통해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인재 영입은 현재 당이 직면한 개혁과 혁신을 이뤄낸다는 점에서 어떤 인물을 선정할 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호남지역에 당내 특보 임명 등 추가적인 당직 부여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호남에서의 새로운 인재 영입에 대한 부담도 크다는 게 당 안팎의 분위기다. 앞서 민주당 당 대표 특보 임명에 1차로 이름을 알린 4명 모두 광주·전남 총선 출마 예정자였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추가 특보 임명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총선 출마 예정자를 인재로 영입하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당내에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호남지역 출마 예정자를 인재로 영입하면 '특정인 총선 몰아주기'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이다. 인재 영입이 측근 인사들의 정계 입문을 돕는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국민 추천제'를 통해 총선 인재 영입에 적합한 인물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지지세가 강한 친윤(친윤석열), 친명(친이재명) 인물이 영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그러나 총선과정에서 당에 긍정적 영향과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있고, 참신한 인물 선정이 민심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인재 영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부식·파손 방치…위험천만 광주 어린이공원 ▶6면
광주FC, 3위 지키기 '마지막 승부' ▶18면
호남의 누정 - 광주 매곡동 하은정 ▶22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알립니다

71 SINCE 1952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72기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 모집

창사 71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발굴, 보도하면서 독자와 지역민의 대변지를 자임해왔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종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어갈 창의적인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모집부문	전형절차	자격
수습기자 O명 경력기자 O명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전형일정

전형방법	일정 및 장소	
지원서 접수	11월 21일(화)~12월 4일(월)	방문 및 우편 메일(chongmu@kwangju.co.kr) 접수
서류전형 발표	12월 6일(수)	개별통보
심층면접	12월 11일(월)	본사 10층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12일(화)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수습기자	입사지원서 1부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A4 용지 1장 이내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경력기자	수습기자 응시자 제출서류와 같음	개인정보 비밀 보장
	본인 작성 기사 사본 5건	

▶접수처: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光州日報社

광주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차량 집중 단속

광주시가 내년 3월까지 북구 각화동 문화사거리 앞 등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집중 단속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그동안 수도권과 부산·대구에서만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전국 특·광역시도로 확대됐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평일 오전 6시~밤 9시 사이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하다 CC-TV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 도심 내 CC-TV 설치지역은 ▲동구 남문로(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서구 무진로(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남구 서문대로(송하동 효천역 건너편) ▲북구 동문대로(각화동 문화사거리) ▲북구 북문대로(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광산구 상무대로(신촌동 송정장례식장 앞) ▲광산구 하남대로(월곡동 광산고용복지센터 앞) ▲광산구 북문대로(신창동 산월IC 부근) ▲광산구 무진대로(소촌동 소촌산단 출구) 등 9곳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상생의 에너지 광주·전남의 시너지

한국전력이 에너지밸리로 광주 • 전남 지역 상생의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 갑니다

에너지 혁신 기업부터 기술 연구소, 교육 기관까지
모두의 시너지로 더 큰 에너지가 탄생하는 곳
한국전력공사가 광주·전남 혁신도시와 함께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책임질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